

3/14 월요일

골 2:18-19

18 <sup>1</sup>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sup>2</sup>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sup>3</sup>본 것들에 <sup>4</sup>사로잡혀, <sup>5</sup>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19 <sup>1</sup>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sup>2</sup>몸은 <sup>3</sup>마디와 <sup>4</sup>힘줄을 통하여 <sup>5</sup>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sup>6</sup>자라심으로 <sup>7</sup>자라는 것입니다.

골 2:8

8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빌 3:14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요이 1:8-9

8 여러분은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일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2:18<sup>1</sup>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적인 교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함을 보이려고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겸허함과 천사 숭배라는 그러한 요소와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을 빼앗았다.

2:18<sup>2</sup> 이단적인 교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했으며, 반드시 천사들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도들의 상을 빼앗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있다.

2:18<sup>3</sup> 이단적인 교사들은 보이는 영역 안에서 살았으며, 이것은 2 장 12 절에 언급된 믿음과 대조된다. 그들은 신기한 것들을 보기 좋아했다. 눈에 보이는 체험을 고집한 결과, 그들은 육체에 속한 교만, 곧 육체의 생각을 따른 헛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2:18<sup>4</sup> 혹은, 관찰하여, (비밀한 것들을) 조사하여.

2:18<sup>5</sup> 혹은, 육체에 둔 생각을 따라.

2:19<sup>1</sup>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은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서 빛나가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되도록 하여,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심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엡 1:10). 간교한 자의 계약은 성도들을 사로잡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2:19<sup>2</sup> 이단은 성도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하지만, 사도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몸을 보호하며 건축한다.

2:19<sup>3</sup> 마디는 몸의 공급을 위한 것이다.

2:19<sup>4</sup> 힘줄은 몸의 지체들을 함께 짜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19<sup>5</sup> ‘머리로부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로부터 자라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2:19<sup>6</sup>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경배의 방식 등과 같은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몸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는 것에 달려 있다.

2:19<sup>7</sup> 자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즉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증가되심으로 자란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 장 18 절에 묘사된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서, 바울은 계속하여 19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증가로 자라느니라」. 천사 송배라는 이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미혹하였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간교한 자의 방법은 성도들을 떼어 내어 그 몸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골로새의 이단은 성도들을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다. 이것이 그 몸을 손상시켰다. 바울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몸을 보호하며 건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보존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기한 환상과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요소들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일으킬지 모른다. 사악한 생각을 가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악한 자와 하나이다.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악한 생각과 접촉을 가질 수 있다. 타락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과 간음을 범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태도로 행동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이상하게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찬양하게까지 한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서 맑은 생각, 즉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생각이 필요하다(3:10).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주된 이유는 성도들을 사기 행위로부터 구해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보존하는 것이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증가로 그 몸이 자라나는 것이다.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교회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확장과 함께, 하나님의 증가로 자라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25 장)

**3/15 화요일**

**골 2:20-23 (20, 23)**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sup>1</sup>죽어서 <sup>2</sup>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합니까?  
 21 그 규례는 곧 “<sup>1</sup>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라는 것으로서,  
 22 (이런 모든 것은 <sup>1</sup>한때 쓰이고는 <sup>2</sup>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23 <sup>1</sup>이러한 것들은 제멋대로 하는 경배와 가식적인 겸허와 자기 <sup>2</sup>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sup>3</sup>평판이 있지만, 육체의 방종을 막는 데에는 <sup>4</sup>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롬 6:4-5**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갈 5:16**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롬 7:4-6**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낚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각주에서 발췌**

2:20<sup>1</sup> 침례 안에서 죽는 것(롬 6:3).

2:20<sup>2</sup>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일의 초보적인 원칙들, 곧 금욕주의와 같은 형식주의에 속한 유치한 가르침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 2 장 각주 8 참조.

2:21<sup>1</sup> 이것들은 물질적인 일들에 관한 규례와 규칙과 규정이며, 움직이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을 각각 다루고 있다. 붙잡는 것과 맛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일들에 관한 규례는 금욕주의의 실행과 관련된 규례이다.

2:22<sup>1</sup> 혹은, 소모되고는.

2:22<sup>2</sup> 혹은, 부패될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한때 쓰이고는 부패하여, 분해되고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전 6:13, 마 15:17).

2:23<sup>1</sup>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골 2:22), 규례(골 2:20)를 가리킨다.

2:23<sup>2</sup> 이것은 금욕주의이다.

2:23<sup>a</sup> 헬라어로 말 또는 발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각을 표현하고 밝히는 것이며, 따라서 평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23<sup>4</sup> 형식주의와 금욕주의와 같은 초보적인 가르침들의 규례와 규칙과 규정은 육체의 방종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이 메시지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금욕주의에 대비된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육체의 방종을 억제하려고 몸을 심하게 다루는 금욕주의의 여지가 없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인간의 발명, 곧 사람의 타락한 생각의 산물이다. 힌두교도나 불교도들은 금욕주의를 실행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욕주의는 2 장 20 절에서 말한 세상의 초등 학문의 부분이다. 이 초등 학문은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초보적인 원칙, 곧 형식주의의 유치한 교훈들이다. 이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초보적인 가르침, 즉 금욕주의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의 의식적인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훈들을 의미한다. 몸을 학대하거나 육을 억누르려는 노력으로 자신을 심하게 다루는 것이 금욕주의의 초보적인 원칙이다.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은 전적으로 다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른,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영적 세계와 관련하여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십자가의 물질적인 면, 즉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면을 좋아한다. 그러나 14 절과 15 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계셨을 때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도말하는 역사를 하셨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악한 정사와 권세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셨던 것을 방해하기 위해 바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벗겨버려 십자가로 그들 위에 승리하셨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물론 물리적인 면에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인들도 아주 활동적이었다. 이 모든 활동의 초점이 십자가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중심적인, 유일한 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금욕주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인 우리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기쁜 사람들, 즉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하며 우리 자신을 학대해야 하는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의 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체험은 금욕주의에 대비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26 장)

### 3/16 수요일

#### 골 3:1-3 (1, 2)

- 1<sup>1</sup>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 2<sup>2</sup> 일으켜졌다면, <sup>3</sup>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sup>1</sup>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 롬 8:4-6

-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요일 2:15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 고후 4:18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 마 6:33

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각주에서 발췌

3:1<sup>1</sup> 3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3:1<sup>2</sup> 이것은 침례의 일으켜지는 방면이며, 금욕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3:1<sup>3</sup> 즉, 하늘에. 3 장 2 절의 ‘땅에’와 대조를 이룬다. 하늘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또한 교회와 연결된다. 위에 있는 것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3:2<sup>1</sup> 땅에 있는 것들은 앞의 두 장에서 말한 문화, 종교, 철학, 행위 개선 등을 포함한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골로새서를 매우 간결하게 썼다. 오직 네 장만으로도 그는 많은 풍성을 제공한다. 1 장

12 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분깃임을 가리킨다. 우리의 분깃이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분이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1:15, 18).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2:2) 신격의 모든 총만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한다(2:9).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격의 체현이신 그분은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실체요, 몸이요, 실체이다(2:16-17). 그분을 이러한 실체로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몸을 의식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서(3:4), 그리고 새 사람의 구성 성분으로서(3:10-11) 체험할 것이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이엄청난 문제들을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에 참여하는 자들, 곧 새 사람의 지체들로 구성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은 그것들에 두어야 한다.

3 장 1 절과 2 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 문화, 종교, 철학, 천연적인 인간 미덕 등 - 을 잊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대신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을 놀랍고 뛰어난 것들 곧 위에 있는 것들에 두기로 하자.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늘에 속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는 신성한 발전소로부터의 전달이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온 존재를 하늘을 향해 열고 「스위치」를 계속 켜 상태로 두기를 배우자. 종교나 철학이나 기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당신의 주의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속한 발전소를 향해 열린 채로 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의 풍성이 당신 안으로 전달될 것이며, 당신은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될 것이다.

...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짜여질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 해답은 만유를 포함한 영을 수단으로 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하나의 전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전달에 의해 하늘에 속한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안으로 흐르는데, 이는 마치 전기가 발전소로부터 우리 가정과 집회소 안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삼층천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전달되다니! 「영광 안의 한 사람, 그의 생명, 나 위한 것일세」(찬송가 31 장). 그리스도는 영광 안에 계신 사람이지만,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으로 오는 하늘에 속한 전달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전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열려 있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약간의 절연체로도 이 전달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총만인 그리스도와 한 새 사람 사이에 하늘에 속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있다. 어떤 절연체도 이 신성한 전달을 방해하지 않기 바란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58 장)

### 3/17 목요일

골 3:3-4

3 왜냐하면 여러분은 <sup>1</sup>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sup>2</sup>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sup>3</sup>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sup>1</sup>그리스도는 우리의 <sup>2</sup>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갈 2:10-11**

10 그들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11 그러나 계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갈 3:27**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롬 6:3-5**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빌 3:9-10**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각주에서 발췌**

3:3<sup>1</sup>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땅에 있는 것들, 특히 금욕주의와 관련된 것들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롬 6:3).

3:3<sup>2</sup> 우리의 생명(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그리스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3:3<sup>3</sup>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sup>1</sup>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 즉 이 책에 계시된,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존재의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3:4<sup>2</sup>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으나, 장래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생명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골로새서 2 장 20 절부터 3 장 4 절까지에서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인격이 우리에게 계시된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십자가이며, 유일한 인격은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요 우주의 중심이신 분, 곧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욕주의로 말미암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사는 것은 철학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고(골 1:12),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골 1:15),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골 1:15),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골 1:18), 하나님의 총만이 그 안에 거하는 분이시고(골 1:19, 2:9),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시며(골 1:26), 하나님의 비밀이시고(골 2:2),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재이시며(골 2:16-17),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다(골 3:10-11).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삶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누린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앞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길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259 쪽에 있는 도표는 사실상 이 한 인격과 한 길의 표시다. 여기에는 그노시스코와 금욕주의의 여지가 없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교훈들과 금욕주의의 실행은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져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도표에 묘사된 선 밖에 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인격과 한 길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각종 주의(主義)와 철학과 실행으로부터 이 한 노선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체험에서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취하는 것은 분명 자신을 어떤 식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금욕주의의 미묘한 형태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좋아했다. 결국에는 그 책이 옹호하고 있는 것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금욕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만유를 포함한 영을 접촉해야 한다. 어떤 약의 효능이 조제된 한 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이 영 안에 있다. 한 포의 조제약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약의 효능을 체험한다. 오늘날 만유를 포함한 영은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높이 올려진 인성도 만유를 포함한 이 영 안에 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려면 우리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내부에서 자유로운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영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상황에 적용시키도록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체험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도 체험한다. 이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3 장 3 절에 있는 「감춰어진」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져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춰어져 있는 때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

기독교의 실행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생활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춰어진 생활,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진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춰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은 그들을 선전하여 사람들을 놀리고 그들의 일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실행은 바벨론적인 것이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춰어진 생활이다. 감춰어져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그러나 자기 선전을 하고 자신을 증진시킬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감춰어지고 고통을 받는 때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27 장)

**3/18 금요일**

**골 3:5-10 (5, 9-10)**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sup>1</sup>육체의 각 부분을 <sup>2</sup>죽음에 넘기십시오. 곧 음행과 부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6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7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8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격분과 화와 악의와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sup>1</sup>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sup>2</sup>벗어 버리고  
10 <sup>1</sup>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5:24**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엡 4:22-23, 25**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3:5<sup>1</sup>** 우리의 죄 있는 육체의 각 부분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우리의 타락한 몸을 죽음의 몸이 되게 한다(롬 7:23-24). 따라서 우리의 죄 있는 육체의 각 부분은 음행과 부정(不貞)과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과 탐욕처럼 죄가 되는 일들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3:5<sup>2</sup>**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갈 2:20 상)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롬 6:3).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능력을 통하여(롬 8:13)

죄 있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 있는 육체의 각 부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한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 장 24 절과 일치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욕망을 지닌 우리의 육체에 적용한다. 이것은 금욕주의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3:9'** 에베소서 4 장 각주 22 참조.

**3:9<sup>a</sup>** 옛사람을 벗는 것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다. 먼저,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혼의 악들을 버리며, 마지막으로 옛사람 전체를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린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3:10'** 여기서의 새로움은 헬라어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에베소서 4 장 24 절에서의 새로움은 본성이나 질이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새사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 장 각주 24 첫째 단락 참조.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므로, 새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점이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침례 때에 우리에게 적용된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놓여지며 장사된다.

로마서 8 장 11 절과 13 절에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는 그 영의 능력 안에서 수행된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시도는 단지 금욕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 영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역사이다.

...

우리는 금욕주의에 관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려는 시도로 자신에게 어떤 것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자신을 열고 그 영을 우리 안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효능을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에 적용시켜야 한다. 금욕주의는 영적인 자살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영의 넘쳐 흐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

8 절에서 바울은 악한 혼적인 것들을 내어버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격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을 앞의 구절들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육적인 것들을 한 범주 안에 분류하고 타락한 혼적인 것들을 또 다른 범주 안에 분류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육적인 것이든 타락한 혼적인 것이든간에 소극적인 것들은 모두 내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의 능력으로 행한다.

...

9 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한다.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옛사람의 전체 인격은 벗어버려져야 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침례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롬 6:6), 침례로 장사되었다(롬 6:4).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28 장)

### 3/19 토요일

#### 골 3:10-11

10 <sup>1</sup> 새사람을 <sup>2</sup>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sup>3</sup> 분의 <sup>4</sup>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sup>5</sup>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sup>1</sup> 거기에는 <sup>2</sup>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sup>3</sup>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sup>4</sup> 야만인이나, <sup>5</sup> 스구디아인이나, <sup>6</sup> 노예나, <sup>7</sup> 자유인이 <sup>8</sup> 없습니다. <sup>9</sup>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sup>10</sup>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엡 2:15-16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엡 4:24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빌 1:21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3:10<sup>1</sup>** 여기서의 새로움은 헬라어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에베소서 4 장 24 절에서의 새로움은 본성이나 질이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새사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 장 각주 24 첫째 단락 참조.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므로, 새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점이다.

**3:10<sup>2</sup>** 새사람을 입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3:10<sup>3</sup>**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엡 2:15).

**3:10<sup>4</sup>**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킨다(골 1:15, 히 1:3 상).

**3:10<sup>5</sup>** 새사람은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를 그 구성원으로 삼아 창조되었다(엡 2:15). 그러므로 새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이라는 구절이 가리키듯이,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

**3:11<sup>1</sup>** ‘거기’는 3 장 10 절에 있는 새사람을 가리키므로, 결국 ‘거기에는’은 ‘새사람 안에는’을 의미한다.

**3:11<sup>2</sup>**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좋아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좋아했다(고전 1:22).

**3:11<sup>3</sup>** ‘할례자’는 여기에서 유대 종교의 의식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유대 종교를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3:11<sup>4</sup>** ‘야만인’은 미개인이다.

**3:11<sup>5</sup>** ‘스구디아인’은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

**3:11<sup>6</sup>** 노예로 팔린 사람.

**3:11<sup>7</sup>**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

**3:11<sup>8</sup>**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상태 그대로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도 전혀 없다.

**3:11<sup>9</sup>**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그분은 새사람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다. 그분은 새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시다. 사실상 그분이 새사람, 곧 그분의 몸이시다(고전 12:12). 새사람 안에서 그분은 중심과 전부이시다.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시고, 새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3:11<sup>10</sup>** ‘모든 것’은 새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를 가리킨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몸이다(엡 2:15-16). 그 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15 절의 분명한 이상에 따르면 새 사람은 단체적인 총체이다. 이것은 새 사람이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더욱이 에베소서 2 장 16 절은 이 집합적인 사람들로 창조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새 사람과 그 몸은 바꾸어 사용될 수도 있는 동의어이다.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창조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생각 안에 있었다. 그들은 새 창조에 관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총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

3 장 10 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총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말한다(1:15, 히 1:3).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다(엡 2:15).

에베소서 4 장 24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형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새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골로새서 3 장 10 절에서는 새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4 장 24 절에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지만 골로새서 3 장 10 절에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총만한 지식을 가져오며 이 총만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이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1 장 15 절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총만을 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총만이며 표현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11 절에서 바울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고 말한다. 10 절에서 새 사람을 말하는 「거기」라는 말은 새 사람 안을 의미한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도 없다. 더 나아가 어떤 천연적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다. 철학적인 지혜를 위하는 헬라인도, 기적적인 표적을 위하는 유대인도 있을 수 없다(고전 1:22). 할례당이나 무할례당도 있을 수 없다. 할례당은 유대의 종교적인 의식(儀式)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무할례당은 유대 종교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더욱이 새 사람 안에는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 야인은 미개한 사람이고, 스구디아인은 가장 야만스런 사람들로 간주되었으며, 노예는 속박에 팔린 자들이었고, 자유인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새 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자로 간주해야 한다.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만을 위한 여지가 있을 뿐, 어떤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 것도 아닌 자들이다.

(골로새서 스터디, 28 장)

### 3/20 주일

갈 3:26-29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28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엡 4:20-25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찬송 (영한 동번)

#388 (#510), #n/a (#1087),  
#n/a (#1187), #359 (#474),  
#435 (#593), #n/a (#1230)

###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메시지 25, 26, 43, 27, 28

2022. 3. 14 ~ 2022. 3. 18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7 장